

시대를 넘어선 의지

높게 뜬 따스한 태양이 쨍쨍하게 내려찍는 무더운 여름날.

“아. 짜증 나...”

상당히 불량한 모습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여학생이 만인의 총 입구에 서 있었다.

학생 이하은. 평소였으면 집에서 퍼질러 낮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해야 할 시간이었으나. 자신이 조의 친구들에게 쌓아온 치졸한 변명과 성실치 못하여 게을러 빠진 태도가 기어코 이곳에까지 발걸음을 이끌게 되었다.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내린 과제에 마땅히 이행해온 친구들의 레이저를 뿔어내는 그 소름 돋는 눈빛에 떠밀려 사진 촬영이라는 일을 맡게 되었지만. 이하은은 불만이 참 많았다.

사진 촬영 하나 하려고 담당자와의 통화와 서류 제출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귀찮은 건 딱 질색인 이하은에게는 그야말로 불만이 그득하게 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허가를 받고 왔지만 뜨거운 불구덩이와 같은 태양이 반긴 모습에 안 그래도 짜증 나던 상황이었던 이하은은 화가 터질 듯이 끓기 시작하면서 만인의 총에 시선을 둔 채 생각했다.

고작 이제 살아있지도 않은 선조들의 역사를 조사하고 알아봤자 뭐가 남는다고?

“진짜로. 이해가 안 되네. 이딴 걸로 시간이나 잡아먹는 게 맞아? 칙칙한 역사 조사 같은 건 때려치우고 21세기인 현대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참나. 어이없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내뱉으며 누군가 들으면 한소리 듣고도 남을 말을 내뱉던 이하은은 손에 든 낡은 카메라를 들고 대충 주변을 찍기 시작했다.

만인의 총. 본인의 속한 조에서 과제로 맡게 된 장소로 애당초 이런 것에 귀뿔도 관심이 없었으며 과제를 할 마음조차 없는 이하은은 설렁설렁 사진을 찍었다.

“쓰읍.. 그래도 사진은 제대로 찍을까?”

이하은은 아빠에게 빌린 낡은 카메라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그래도 나름 사진작가가 꿈이지 않은가?

하지만 이하은은 고개를 작게 흔들며 평소의 게으른 모습으로 돌아갔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따라오는 낯은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이하은의 발자취를 대신하였다.

어느덧 만인의 총 앞까지 오게 된 이하은은 낯은 카메라를 손에 들었다.

찰각.

낯은 카메라를 눈에서 내려놓은 이하은은 가라앉은 눈으로 만인의 총을 바라보았다.

“...어차피 죽으면 무엇도 남지 않은데. 뭣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야. 쫓. 우습네.”

무덤을 바라보며 독니를 지닌 독사처럼 신랄하게 혈뜬은 이하은은 고개를 돌려 떠나려고 하였다.

감히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막말을 지껄이는 것이냐!!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큰 소리, 진노로 가득한 호통이 이하은을 향해 날아왔다.

“까악!! 뭐. 뭐야?”

이하은은 심장이 떨어지는 것처럼 놀라며 소리가 들린 만인의 총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무자비한 적의 칼에 쓰러져도, 패배만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땅에 묻혀 잊힌다 하여도,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운 의미만은 수백 년을 넘어 전해지니.
그 뜻을 배워 깨우쳐라.

“...예? 그게.. 대체 무슨 소린이신지?”

이하은의 몸이 천천히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새처럼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이게 뭐야!!!?”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떠오르던 이하은은 구름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그렇게 이곳에 한 명의 소녀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으아아!!!”

이하은의 몸이 구름을 넘어가자 곧바로 다시 추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하은은 원치도 않는 스카이다이빙을 하게 되었다.

숲에 추락하기 직전. 이하은의 몸이 천천히 떨어지며 두 발이 땅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심약한 이는 졸도 했을 정도의 정말로 아찔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이하은은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으면서 공포감에 절인 몸을 진정시켜 갔다.

“으으..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작스레 하늘에서 울린 목소리부터 공중에 떠올라 구름을 넘어 지상으로 떨어진 이야기.

도저히 이하은의 지닌 상식과 17년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느 정도 감정이 진정된 이하은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숲과 나무가 주변에 펼쳐져 있었으며 해는 높게 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와 더불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떨어지게 된 이하은은 불안감에 황급히 휴대폰을 들어보았다.

손에 든 휴대폰은 그 어떤 전파도 잡지 못한 채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빛줄기만 밝힐 뿐이었다.

‘전파도 안 잡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데.. 애당초 지금 여기가 어디인 건지.. 대한민국인 것조차도 모르겠는데...’

“흐으.. 엄마.. 아빠..”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난잡하게 흐트러 놓으며 불안감이 점차 증폭되던 이하은은 애써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우선 숲을 벗어나기로 하였다.

그렇게 익숙지도 않은 숲길을 헤쳐 나아가던 이하은에게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침울하게 가라앉은 얼굴을 환하게 피며 사막에서 물을 찾은 것 같은 모습으로 달려나갔다.

치마 차림이었던 다리에 나무들이 굽혀 갔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달린 이하은의 눈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하은이 바라던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운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의 모습. 사진 속에서만 보던 병사가 이하은의 앞에 나타났다.

“이게.. 무슨..”

“朝鮮女性? (조선 여자?)”

잠시 이하은을 보며 생각하던 일본 병사는 이내 마음을 정한 듯 검을 치켜세웠다.

“まあ全部お粥と言ったから。(뭘. 전부 죽이라고 하셨으니.)”

“어..?”

이하은은 검을 든 일본군의 모습에 털썩 주저앉으며 주마등에 가까운 생각을 했다.

나 이렇게 죽는 거야?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라고..?
거짓말...거짓말.. 꿈일 거야...

이하은은 본인의 눈앞에 내리쳐지는 일본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따라온 바람 소리.

피속.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던 이하은은 오지 않는 고통에 의문을 가지며 조심스레 눈을 떴다.

시야에 보이는 것은 목에 화살이 박힌 채 쓰러진 일본군의 모습이었다.

“괜찮은가?”

조선군의 복장을 갖춘 사람의 모습에 무심코 긴장이 풀린 이하은은 정신을 놓았다.

“이보게?! 이보게!”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이하은의 시야는 암전됐다.

나무로 된 천장.

“으으.. 여기는?”

이하은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본 천장이었다.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 지으며 정신을 가다듬은 이하은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 복장이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라기엔 너무 현실적이었고. 또 죽을 뻔한 위기가 도저히 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조선군.

“그러면 여기는 조선군 측의 막사인 걸까?”

생각을 마칠 때쯤 문을 열고 한 명의 병사가 나왔다.

“일어난 건가? 정신이 들었으면 따라와라. 장군께서 너를 부르시니.”

“예..?”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상황에서 이하은은 병사를 따라 복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선 조선 장군의 복장을 갖춰 입은 어느 한 사람이 근엄하게 서 있었다.

“나는 전라병사 이복남이네. 우리 군인이 그대를 발견해 데려오게 되었네.”

먼저 말을 연 이복남 앞에 서게 된 이하은은 뺄뺄하면서 떨리는 자세로 조심스레 운을 떼었다.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 조선인. 이하은이에요..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전무후무한 속도로 팽팽하게 돌아가며 상황에 적절한 말을 조심스레 올리는 이하은이었다.

이복남. 전라도 병마절도사의 직책을 지닌 장군. 남원성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그리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되네... 그나저나 곧 이곳이 전쟁터가 될 터인데... 그대 같은 어린 이도 전쟁에 휩쓸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군.”

순간적으로 이하은의 머리는 마치 석상처럼 굳어 멈추게 되었다.

남원성 전투.

생각하기도 싫었다. 떠올리기도 무서웠다. 곧 죽음으로 번질 이곳에서 남게 된다니.

이하은은 저도 모르게 멍한 표정을 짓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절망했다.

그러한 무너진 모습을 보던 이복남은 병사 중 하나인 파진군 김효겸을 불러 말했다.

“지금 우리는 공성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불찰도 있어선 아니 된다. 그러니 직접 저 이상한 복장의 이하은이란 여자를 잘 감시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이하은은 이성이 완전히 붙잡아 놓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갔다.

남원성에 머물면서 이하은은 한복도 입어보기도 하고 남원성 주민들의 친절함도 받아보기도 한 하은은 최근 들어 정신이 불안정했던 자신의 마음을 채워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병들과 군인들의 철벽과도 같은 마음과 의지는 이하은의 빈 마음을 열의로 채워 일으켜 주었고, 그런 따스한 여운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는 와중에도 이하은의 머릿속 생각은 끊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무사히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라앉기만을 반복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하은은 처음 과거로 오기 전부터 목에 걸려 있던 낡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위안으로 삼았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어느 순간 자신의 곁에 늘 서 있던 김효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으나 몇 번의 이야기를 나눔으로 점차 믿음으로 신뢰를 다져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주위에서 힘을 얻어가고 또 두려움에 떨어가며 시간을 보내었다.

성 밖에서의 시끄러운 소리와 성안의 분주한 소리를 들으며 이하은은 사진기를 손에 껴안은 채 조용히 침상에 누우려는 순간이었다.

우아아아!!!

천지를 뒤흔들고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남원성의 외곽을 중심으로 퍼져갔다.

“일본군이 왔다네! 어서 일어나게나!”

김효겸의 다급한 소리에 이하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낡은 카메라를 손에 쥔 채 이하은은 김효겸을 따라 이동했다.

서문과 동문. 그리고 남문에서 불이 번지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북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달리면서도 그 참혹한 광경을 찍었다.

입술에 피가 흐를 정도로 깨물면서 사진을 찍은 이하은은 이내 김효겸을 따라 달렸다.

“...죄송합니다.”

이하은은 죄책감이 물씬 올라왔지만 다만 찍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강철같은 의지와 이 땅에서 있었다는 의미를,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모든 것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전장에선 김효겸의 도움으로 몇 번의 위기를 넘기면서 마침내 이복남과 조선군들이 있는 북문으로 오게 되었다.

“끝까지 싸울 자는 목숨 바쳐 싸우고 살고 싶은 자는 도망쳐도 좋다.”

이복남은 모든 병사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죽음에 가까운 공포와 패색으로 깔린 전장. 도망가도 하등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모든 병사의 눈에는 일절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도망가는 자들 또한 없었다.

그 모습에서 이하은은 무언가 안쪽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다.

이복남의 말을 들은 김효겸은 의지가 깃든 또렷한 눈으로 이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곳에 남을 거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이하은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그리고 이내 결심을 내렸다.

“저도 남을게요.”

김효겸은 이하은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움직였다.

그 이후론 애써 눈을 뜨기도 힘든 끔찍한 광경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끝까지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이하은의 낡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채워나갔다.

그리고 이하은 본인도 끝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하은은 본인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자 돌아가지도 못할 자신은, 사진기 속 데이터는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사라질 거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하은의 눈은 그들의 굳센 의지를 보았고, 이하은의 귀는 그들의 용맹한 목소리를 들었으며 이하은의 마음은 어느 순간 따스하며 무엇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함이 자리를 잡았다.

어느샌가 남원성 사람과 같은 눈을 한 이하은을 일본군의 검이 찌르기 직전.

잘 보았네. 그대의 마음은 충분히 그들과 같이 강건하다.
변하는 이를 신은 외면치 않으니. 의미를 담아 돌아가라.

이하은은 또다시 하늘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당황 섞인 말도 없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떨어지는 빗줄기와 같은 슬픔을 머금을 뿐이었다.

무엇이 그리 슬픈가.

“저만이.. 이곳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만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 슬퍼 말라. 그들의 의지와 마음은 그대에게 전해졌으니.
잃지만 앓는다면 그들의 의미는 너에게 남아있다. 그러니 슬퍼 말라.

어느 순간. 이하은은 만인의 총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있었다.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난 이하은은 사진기를 들었다. 처음보다 더 정밀하면서 제대로 감사를 담아 하나하나 신중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곤 예의와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사를 담아 이하은은 눈물과 미소를 담아 말하였다.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